

'번뇌=보리' 불이사상 설파

유마경 상

당대의 선종의 번뇌는 중국불교의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며 삶의 본질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불교를 근거로 깨닫고(悟) 그 참된 정신 즉 불심의 세계를 계승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종교정신을 투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대승불전이 그 근거가 되었다. 대승불교의 이론적 전개를 삼을 통한 실천적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마경>이다. 이 경은 공(空)의 근본적인 입장을 보살의 적극적인이고 긍정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미를 실현해 보인 것이 그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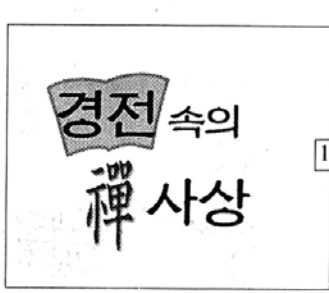
<유마경>(rya-Vim lak rti-nird san mahay na-s tra)은 5C경 구마라집이 번역하였고 그 구성은 14품으로 이루어졌다. 제명의 의미가 '유마월이 실한 경'이라고 하듯이 이 경의 주인공 유마는 심원한 대승불교의 교의를 총칭으로 설명하며 실행해 보인다.

또한 이 경전에는 다른 명칭이 붙는데 '불가사의해탈'이 그것이다. 즉 대승의 진리를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의 경지인 '해탈'을 설하는 경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의 14품 전체가 이 '부사의해탈'을 위한 설법이며 궁극에는 유마 자신이 '부사의해탈' 즉 공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혜원 (동국대, 선종사건공)

을 보인다. 공의 개념적 자각으로 이끄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보살(수행자)의 행도(行道)를 명료히 보이는 것은 특히 '문수사리문질품'과 '입불이법문품'이다. '문질품'에서는 병든 유마가 등장하고 문수보살과 함께 대승불교의 깊은 가르



문수와 유마 대화 不二법문 백미

'돈오입도요문'은 24곳이나 인용

침을 설한다.

문수가 문병을 가자, 유마는 "그대는 오지 않는(不來) 모습(相)으로 오셨고 보지 않는(不見) 모습(相)으로 옵니다"라고 불이(不二) 법문을 제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문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마는 먼저 방을 텅 비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먼저 공사상을 표현하고 이 공사상에 입각하여 '불래의 래 불견의 견'인 '불이(不二)'를 설한 것이다. 그러나 문수 역시 유마의 의미를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 넘긴다. "그렇

습니다. 거사에 만약 와 버렸으면 다시는 오지 않고 만약 가버렸으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하지만 어디로 온곳이 없으며 간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 곳이 없습니다. 본 것은 다시 본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去來)도 견불견(見不見)도 모두 인연상에서 나타난 거짓된 상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대승의 견해를 서로 설하고 있음을 본다. 계속해서 병세에 대해 문수가 묻자, 유마는 "일체중생의 병이 사라지면

내 병도 사라지오." 병의 원인은 미혹함에 서이고 유마의 병은 중생이 없으므로 없는 것이고 중생의 병이 낮게 되면 보살의 병도 낮게 된다는 의미다. 반야의 지혜로 닦여진 유마의 정신은 대비로 움직여져 중생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행원이며 이는 공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라밀행이다.

모든 중생과 내가 같다고 생각될 때(범성동일진성·凡聖同一眞性) 그 성품은 진정한 참된 청정성품(佛性, 眞性)이며 그러한 깨달음에서 비원(悲願)이 일어나며 그것은 행원이 되어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마의 정신은 선의 세계가 되어 중국 선종의 선지와 선수행의 바탕이 된다.

특히 중국불교인 선종과 유마경은 떼어 놓을 수 없다. 달마의 어록인 <이입사행(二入四行)>이나 우두법음의 것이라고 보는 <절관론>, 북종선수의 <대승오방편론> 등에 여러차례 인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선학입문서라고 볼 수 있는 대주해해(830년경 입적)의 <돈오입도요문>에는 무려 24곳이나 인용되며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황벽회운(850寂)의 <전심법요(傳心法要)>이다.

선을 사상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반야사상을 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선은 공의 본질을 나타낸 실천적이고 종교관과 삼론을 포시한 행의 결정체이며 화엄사상의 요체를 밝히는 성기의 도장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7

반야바라밀다 마하경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등 다섯 가지의 덕은 우리가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수행을 교감적인 기쁨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에 틀림없다. 교감적인 기쁨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행복보다는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법 보다는 형상에 매일 수 밖에 없는 성향을 갖기 쉽다.

이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감정이 숨어있다. 우리는 그저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같은 싫어하는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강렬하게 마음 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투하고 타인의 묘과 나의 몫을 비교하며, 우리를 피해간 행운을 무척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부처님과 스님의 공양을 위해 항상 많은 재물을 내놓았어. 또 그들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마치 아집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타인의 행복에 공감하는 감정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행복은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한다.

그들이 얼마간 돈을 벌고 좋은 직업과 새로운 집을 장만하거나, 아이들이 태어났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외기양양해 한다. 반면 정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의기

시기 질투는 나와 남 비교에서 경쟁 초월한 정신완성 추구를

양양에 대해서 연민이 섞인 마음으로 반응하기 쉽다. 정신적인 삶의 규칙,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번영이 영원할 수 없으며, 그런 번영은 우리의 정신을 노예 상태로 만든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 그것은 미래를 큰 고통으로 이끌어 가기 쉽다며, 우리 스스로 반성하도록 촉구한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성숙이 요구된다. 물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경쟁심을 다스리고 조금씩 닦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눌 수도, 그들에게 그 기쁨을 유감없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마치 어른이 곰팡이 걸음마를 배운 아기와 함께 즐거워 하며 해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쌓은 아름다운 모래성을 보고 즐거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경쟁과 자기평가를 중시하는 마음의 영역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혜는 불법을 실제 모습대로 꿰뚫어보게 한다. 지혜는 불법을 감추고 있는 미혹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분의관상의 모습은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불법으로서의 그들의 진실한 실체는 상식적인 그들의 외관에 의해서 감춰진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일상의 현상과 그것의 흔적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본원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다. 현상과 흔적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본원적인 것을 알고 싶다면, 일상의 현상과 흔적을 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만적인 외관을 버리게 하고 불법의 진실한 실체를 꿰뚫어볼 수 있게 하는 정신의 힘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과학산책

엔돌핀

물린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진통제로 20세기 의학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물린보다 200배나 진통작용이 강한 물질이 우리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엔돌핀이라는 이름의 뇌내 마약물질이 바로 그것이다. 엔돌핀(endorphin)이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린이라는 뜻이다.

엔돌핀의 발견은 마약류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일부 뇌과학자들은 물린,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75년 영국 애버딘 대학의 존 휴지와 동료들은 마약과 유사한 물질이 뇌 속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으로 인해 마약의 효과는 마약과 유사한 물질이 뇌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뇌내에서 발견되어진 마약물질은 20종류가 넘는데 이 중 하나가 엔돌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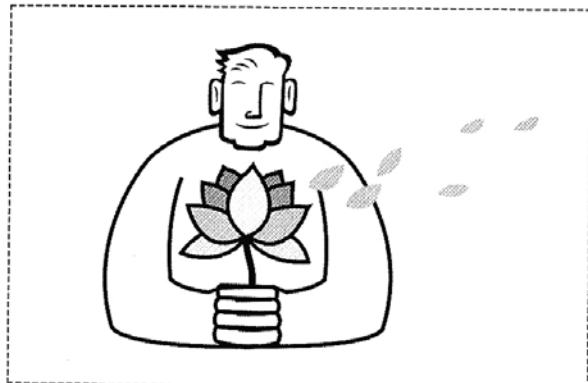
오랜 동안 물린은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여겨져 왔다. 즉, 통증이 인식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격한 감정 상태에서는 물린에서 오는 통증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 즉, 암마가 아이를 구하러 불난 집속으로 들어 갈 때나 병사들이 전투에 몰입되어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좀더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사소한 고통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하게 누르거나 이 야기 할 때는 입안에 생긴 창은 잊어버린다.

진통 작용 메카니즘을 간략히 설명하면, 신경세포의 특정 수용체들은 물린이나 엔돌핀에 의해 채워져 더 이상 다른 화학물질이 고통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화학물질 없이는 얼마나 많은 물리적 자극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화학물질을 받아들여 고통이라는

각각을 전달하는 수용체들이 다른 물질에 의해 이미 점령당해 있어 고통이라는 감각은 발생하지 못한다.

엔돌핀 뇌에서 만든 마약물질 물린보다 진정효과 200배 높아
.....
격심한 마음의 감정 일어날때 작은고통 못느끼게 신경 차단

의해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던 현상이 설명 가능해 졌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침을 이용한 마취의 경우, 침의 자극에 의해 뇌내 마약물질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것이 마취 효과와 나타난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결론적으로, 뇌내 마약물질은 강



력한 진통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강한 통증조차도 뇌내 마약물질이 무마시켜 버린다.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부작용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내부에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는 진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제 우리는 내부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무엇이 엔돌핀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엄마를 불이 난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드레날린 분자가 아니며 화염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해주는 것 또한

엔돌핀 분자가 아니다. 자식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뛰어들게 하는 것이고 일관단심으로 아이를 구해 야겠다는 결심이 고통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두 요소에 의해 뇌에서 물린으로 전달되는 화학적 경로가 마련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엔돌핀이 분비된 것은 아닐까? 육조해능이 바람이 깃발을 흔든다는 주장과 깃발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싸우는 스님들 결을 지나가면서 다음과 말씀하셨다.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바람도 아니요, 당신 마음이다. 조원희(본사 전라정보실장)



삶이 환희롭고 기쁜 것만은 아니었으니 ...

불행과 행복이 쌍둥이고 고통과 환희 또한 손의 앞뒤와 같은 것이듯, 행복과 환희의 기쁨은 반드시 불행과 고통의 동굴을 통과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예외가 될수가 없었다. 마지막 관문인 자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지장보살님의 흑흑한 혼연가피는 승복을 벗어버리고픈 마음머저들께 하는 극한의 인욕을 요구하였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 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 ② 여보게 저승갈때 뭘가지고 가지
- ③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 ④ 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 ⑤ 친구하자, 친구하자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법열속에 부르신 환희의 노래들이다. 참을 수 없는 마장속에 몸부림하며 안으로 안으로 울어 울린 신음의 소리들이 사리보다 영롱하고 빛물보다 진한 노래가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따스하게 적셔 주실 것이다. -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계속 출간됩니다 -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계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지장불교공양차제법 (地藏佛供養齋法) 제1권 지장공양·대공·공덕·원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지장사상을 정립하는 글 등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나게 독송할 수 있는 의식집

출판기념회 5월 21일(금) 오후 8시 공덕원부산포교원 법당

문의처: 열린마음(02)994-4437